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심화

◀연예 이어서▶
이에 조계종은 6월 5일 열린 5차 실무소위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3단계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4개 사찰의 매표소를 단계별로 이전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하며,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민환경단체 문화재관람료 불복종운동 전개=조계종은 손실보상, 법제도개선 등 종단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측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이 매표소 위치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할 때 관련 지원 방안 및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 불편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종단에 14곳의 사찰 3단계 매표소 이전계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측 한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계획은 하나의 단일한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조계종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시민환경단체는 정부와 조계종을 싸잡아 비난하며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악연맹 등 5개 시민환경단체들은 5일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2007년 6월까지 해결하

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돼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단계별로 매표소 앞에서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없이 입장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감정대립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과 정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감정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 물러나 대화로 풀 것”을 제안했다.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에 의해 문화재 보수유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는 ‘준용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손욱근 팀장도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계종에서 먼저 통행세 성격이 강한 매표소를 이전하면 보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Tip
사찰 토지 내 국립공원 시설 및 문화재 현황은?
국립공원 총면적 27억2614만 3000㎡ 중 사찰면적은 2억1600만 9960㎡로, 국립공원 토지 중 7.9%가 사찰소유다.
여기에 매표소 건물 22개, 탐방지원센터 20개, 화장실 80개, 야영장 8곳, 주차장 7곳, 탐방로 151.96km 등이 관광객 및 등산객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또 국보 17점, 보물 61점, 사적 및 명승 3점, 중요민속자료 7점, 유형문화재 83점, 문화재자료 30점, 기타기념물 13점 등 총 214점이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련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www.yosiarmun.com
인턴십 실시기간 현대불교 불교포럼 부디피어 온라인광고 에드부디피어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종단체제 정비 제2도약 할 것”



원용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 ‘종도교육 평가회’ 법계고시 실시·가사 통일 등 발전 방안 제시

원용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수원 용화정사 주지·사진)은 7월 5일 총무원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여명의 종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산 광명사에서 개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달내로 종단 내 30%에 달하는 비구니들의 활동강화를 위해 비구니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스님은 “종단을 일정정도의 위치에 올리기 위해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하고, 그동안 군소종단이라는 취약점으로 못했던 상벌관계도 확실히 할 것”이라며 “종단의 방침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찰들은 종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사찰 장건주들의 경우 유발 비구 비구니로 신분을 격상시켜 활동을 보장해줄 방침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법계고시 실시, 가사 및 의식 통일, 조직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겠습니다.”
원용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수원 용화정사 주지·사진)은 7월 5일 총무원에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여명의 종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산 광명사에서 개최

“신 모 교수 채용 現총장·이사장과 무관”

영배 스님 기자 간담회 개최

동국대 신모 교수 가져 박사학위 논란과 관련 이사장 영배 스님은 7월 2일 이사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前 이사장 장운 스님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를 호도하고 있다”며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영배 스님은 “2년전 어떤 이유든 간에 이사직을 맡고 있음에도 이사장과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욱이 조인식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켜야 할 이사장 확인절차가 끝난

던 증명서라며 팩스 3장을 내보이면서 “동국대 측이 당시 신 모 교수를 채용할 때 예일대 측에 요청한 서류에는 분명히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총장은 “현대불교측에서 신 모 교수 논문과 버지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을 함께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므로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 7월 4일 내정된 신 교수는 5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본지의 인터뷰를 통해 “박사학위는 분명히 취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부탄왕국 문화교류 ‘맞손’

태고종과 부탄왕국이 6월 28일 부탄 수도 팀부시 리버호텔에서 문화교류 조인식을 개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부탄왕국 징메와이 티네이 내부부장관이 서명한 조인서에서 부탄왕국은 한국 불교문화 교류와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은 태고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태고종은 부탄왕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은 부탄왕국의 내부부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양국에 협력위원회를 상설하기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국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태고종은 부탄왕국 내부부장관 초청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부탄왕국을 방문했다.
김원우 기자

“예일대 박사 학위 취득은 진실”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장운 스님이 주장 하는데 사실인가?
-논문은 2005년 썼다. 당시에는 성곡미출판서 일하면서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하며 썼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세컨리더(저조 사요원)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조사해온 자료를 갖고 썼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1년 버지니아대 박사 학위 논문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다.
-나는 베끼지 않았다. 그들이 자료 수집해 온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설사 내가 논문을 베꼈다고 치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동국대 교수직에 임용될 때 학위를 보고 뽑지 논문으로 채용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학자로서 교수에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월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도를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스그러 위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시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세,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육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둘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대한 불교 태상종에서 알려드립니다.

태상종의 모체인 태상가정에서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태상가정 산하 대한불교 태상종 효총사(대구)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종교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한 수행자라도 성숙한 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수행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태상가정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장엄의 세계인 불국토와 다르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지상 천국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모두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바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본 태상가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께 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사랑과 진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께 태상가정에서 준비한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상가정에서는 준비한 책자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인간의 존재목적을 이야기 하고 본성을 회복한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신성과 심정일체를 이룬 부부는 어떠한 사랑을 나누는지, 신의 사랑을 상속받았을 때 경험하는 무수한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고 또한 한 개인을 바라보시는 신의 눈물을 이야기 합니다. 후반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음의 진리인 공의 세계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장에서는 성자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정한 대자유함과 무애행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수행자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 등 수행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백 설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합니다. 또한 의식의 성장단계를 10단계로 보고 많은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성장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가 가야할 목적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사를 이야기 하고 불국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책은 전체적으로 신의 사랑을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내고 그 사랑 속에서 신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상하셨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수행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명명 스님 신청 기각

명명 스님이 제주 관공사 주지직무대행 시용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현)는 6월 27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명명 스님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산정종회 구성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령 및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교구중회 규칙으로 분사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교구중회의 규칙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받쳐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7월 중 주지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주불자연합회는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한다는 것이 담당번호사의 입장”이라며 “어느 쪽 주장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도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진각논문대상 당선작 4편 선정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6월 28일 제9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이종수씨의 ‘조선 후기 정토사상 연구’, 윤희조씨의 ‘종문에서 언어의 문제’, 김세봉씨의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슈퍼-셀프 리더십에 관한 비교연구’, 이방배씨의 ‘수행자제에 있어서 예비수행단계의 비판적 정립’ 등 4편을 선정했다.
또 진각종교학 분야에 공모한 박혜승씨의 논문은 연구 장려과제로 채택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4편의 논문은 11월 중순경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 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현(前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